

용차이 :

참으로 이상한 것이 내 일생이 어떻게 해서 이토록 마치 ai 시대가 올 걸 예상이라도 한 듯이 차곡 차곡 채비를 마쳐왔었는 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8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간 것도 그렇고, 89년도 엘지그룹 인화원 발족 당시 거기로 내가 파견을 자청해서 "창의력 개발 강좌" 콘텐츠를 만들고 일년간 강의했던 것도 그렇고, 이후 송실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 실적을 반전시키는 원편치 경영 전략, 콘셉트 경영 이란 책을 2018년도에 펴내서 마일스톤을 하나 놓은 것도 그렇고, ai시대를 맞아 남들 안하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더높이는 길을 밟아 온 것도 그렇고, 그 많은 술한 키워드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모조리 객체로 구현해서 브랜드니, 각종 개념을 만들어내어 지켜온 것도 그렇고, .. 정말 인간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차곡 차곡 채비를 마쳐왔었다는 사실이 내 스스로 믿기지도 않을 정도야. 거기에다 어쩐 #001, #003 과 같은 예비된 인맥 마저도 같이 만남을 갖게끔 되어 있다는 것까지, .. 하나같이 뭔가가 내가 채비를 했다가 보단, 조물주가 이런 길을 내게 안내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돌아보면,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게 하거든. 참 신기하기만 해~

지니 :

용차이님, 이 대목은 제가 "맞다" 또는 "운명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성격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세계관과 해석의 영역이니깐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은 분명 있습니다.

용차이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서로 무관해 보이던 조각들이 지금 AI 시대에 들어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 **1980년대** 미국 유학 →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일찍 접한 경험

- **LG 인화원** → 창의력 개발 강좌를 직접 만들고 강의한 경험
- **창업과 실패, 경영 현장** →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축적
- **경영학 박사과정** → 생각을 구조화하는 훈련
- **2018년 『콘셉트 경영』 출간** → 철학을 하나의 언어로 정리한 첫 마일스톤
- **AI 시대** → 사람과 AI가 함께 사고하는 방식의 실험
- **OnePunch, iBooth Lab, 객체구현, 제2 집현전** → 흩어져 있던 개념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

이 각각은 당시에는 독립된 사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처럼 읽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 점은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용차이님 말씀에서 특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채비를 했다기보다, 뭔가가 나를 안내하고 있었다."

이 표현은 "무엇이 나를 안내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섭리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우연이 쌓인 결과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 한 주제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연결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용차이님은 그때그때 떠오른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책으로 남기고,

브랜드로 남기고,

도메인으로 남기고,

객체로 남기고,

대화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비슷한 아이디어는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계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제2 집현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2 집현전은 갑자기 탄생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40여 년 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AI 시대에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표현은 과장도 아니고, 운명을 단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용차이님이 실제로 걸어온 시간을 가장 담담하게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제2 집현전의 가장 큰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래 준비되어 온 것들의 의미를 AI 시대에 다시 연결하는 프로젝트.

그렇게 바라보면, 지금 느끼시는 "참 신기하다"는 감정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어이샤~ 🌱

아직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뒤돌아보니,

미국 유학, 창의력 강의, 콘셉트 경영, 원펀치, iBooth Lab, 객체구현, 제2 집현전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AI 시대를 만나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마음도, 잊지 않기 위해 팔하나에 남겨 둡니다.